

Daily Auto Check

2020.12.9(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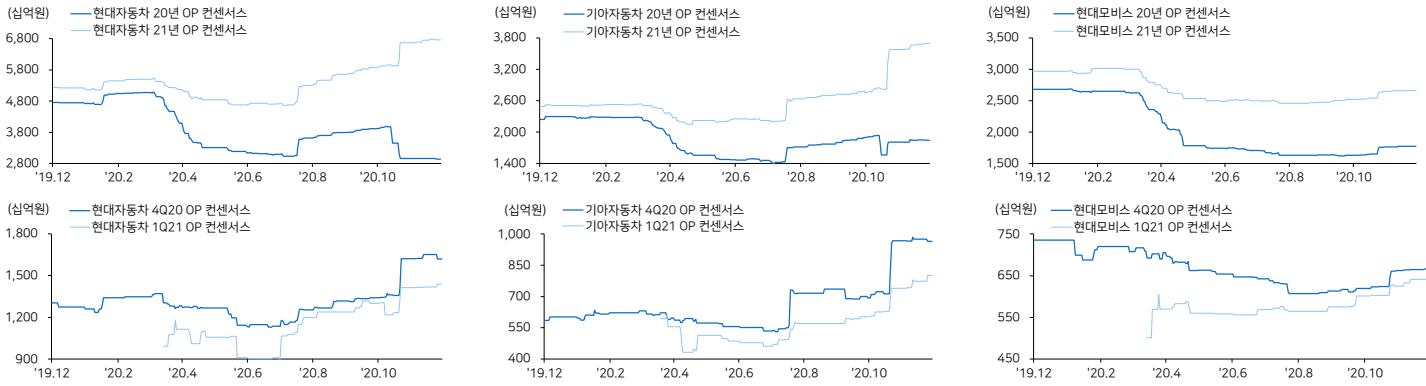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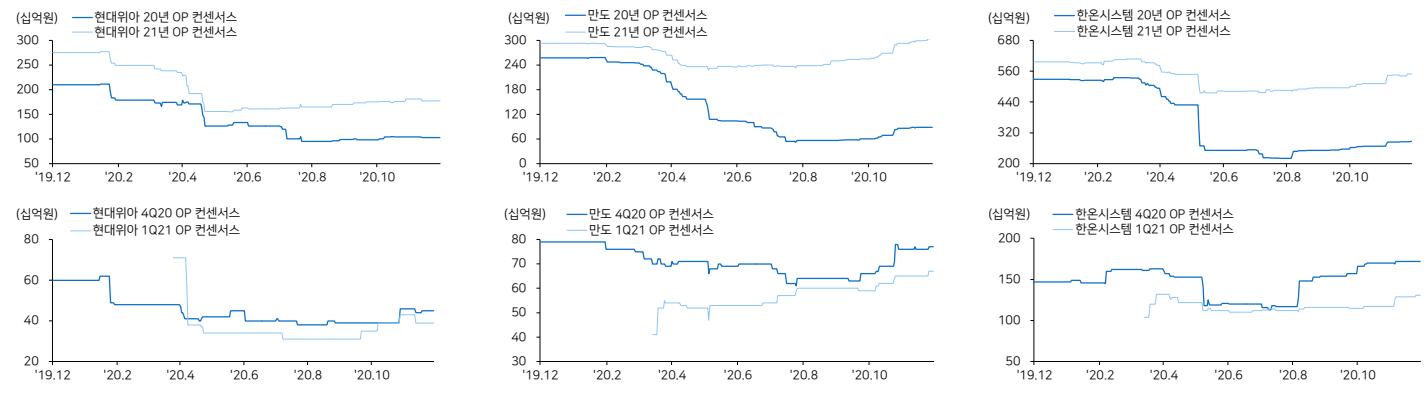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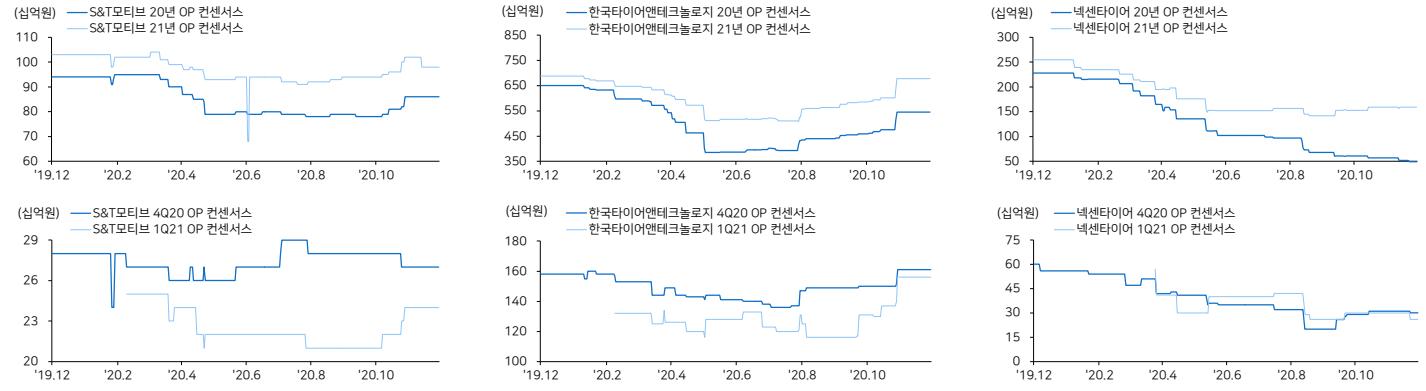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美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한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로봇 개발 분야 선두주자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조만간 인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회장으로 추대된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대형 인수합병(M&A). 가격은 당초 알려진 1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8000억~9000억원 선.
<https://bit.ly/3oy0iOj>

전주 현대차 코로나19로 가동중단…하루 손실 100억 (연합뉴스TV)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트럭 생산 라인이 멈춰 하루 손실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를 간 320대의 트럭을 생산하지 못해 약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
<https://bit.ly/37MlbqL>

한국타이어, 유럽 테스트 1위 석권 (동아닷컴)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카너지 45 2'가 독일 아우트 빌트 알라드가 실시한 2020년 타이어 테스트에서 1위에 올랐을 점은 노면 제동력과 핸들링 험로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미쉐린, 브리ヂ스톤, 굿イヤ어 등 총 11개 테스트 타이어 중 1위를 기록.
<https://bit.ly/3gsthjH>

테슬라보다 인기 많은 중국 토종 전기차…유럽시장 정복할까 (에너지경제)

올 여름 출시된 중국 토종 전기차가 테슬라 모델3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전기차로 부상하면서 유럽시장까지 정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됨.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10년 동안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함.
<https://bit.ly/3m1tJ91>

제네시스, 중형 SUV GV70 공개…내년 4만4000대 판매 목표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이 도심형 럭셔리 중형 SUV 모델인 제네시스 GV70을 공개. GV70은 제네시스가 선보인 5번째 모델로 럭셔리 브랜드의 고유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역동성을 극대화 했다는 평가. GV70의 연간 판매목표는 내년 기준 4만4000대 규모로 제시.
<https://bit.ly/2Lbi1b6>

기아차 노사, 본교섭 결렬…노조 오늘부터 '부분 파업 재개' (아시아경제)

기아차 노동조합이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감. 사측과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추가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 했기 때문. 노조의 다음 정대위는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음.
<https://bit.ly/3oB4pZS>

전기차 왕국' 유럽, 中을 제쳤다…코로나 시대에 급성장 (머니투데이)

유럽이 올해 1~10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등극.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전기차 시장에 순풍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 올해 1~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총 88만1000대를 기록, 중국의 78만9000대를 상회.
<https://bit.ly/3arvRGB>

토요타, 유럽에 수소연료전지 총괄 법인 설립…현대차와의 시장 선점경쟁 '가속' (더그루)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유럽에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총괄 법인 '퓨얼 셀 비즈니스 그룹(Fuel Cell Business Group)'을 설립. '세계 최초'를 달성하는 현대차그룹과의 수소 시장 선점 경쟁을 대비한 모양새.
<https://bit.ly/2VWh1l1>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